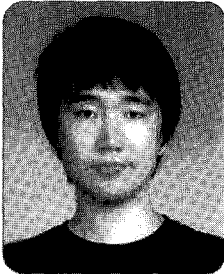


④ 자원봉사 활동기

졸업을 앞두고 찾아온 소중한 경험



이 세 인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4학년
 제47회 전국도서관대회 12기 자원봉사자
 starred3@naver.com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교에 다니면서 도서관과 관련된 외부활동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하는 동안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다. 이렇게 졸업을 한다면 학교 생활이 매우 아쉽고 미련이 남을 것 같았다. 우연한 기회에 학교 동생을 통해서 도서관대회 자원봉사에 대해 알게 되었고 도서관대회를 통해서 나의 꿈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었다. 도서관대회는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언젠가 만날 수도 있는 선배 사서들을 미리 볼 수 있는 기회이고, 졸업 후 직장동료가 될 수도 있는 자원봉사자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꼭 한번 도서관대회에 참석하고 싶었다. 다행히 운이 좋게 마지막 학기에 이런 기회가 찾아와서 정말 기뻐다.


서울역에서 동대구행 기차를 탔다. 창밖으로 가을 들판을 바라보며 4박 5일간 새로운 자원봉사자 학생들과 어떻게 지낼 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동대구역에 도착했다. 오후 2시 30분에 대구 엑스코에 도착해서 협회 직원분들과 자원봉사자를 만났다. 낯선 곳에서의 새로운 사람들과의 첫 만남은 항상 어색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걱정스럽다. 처음 만난 사람들과 금세 친해지는 성격이 아니라서 빨리 친해질 수 있는 계

기가 필요했다. 저녁을 먹고 참가자들에게 배포할 자료집을 가방에 넣는 작업은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2,000여 개의 가방을 정리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일을 하면서 친해지기도 어려운데 우리 22명의 자원봉사자는 달랐다. 문헌정보학과 학생으로 같은 꿈을 향해 달려가기에 그런지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었고 서로 공감대 형성도 빨랐다.

이번 행사 동안 나이가 가장 많다는 이유로 반장을 하게 됐다. 반장의 업무는 자원봉사자들이 맡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빈 자리를 채우며 관리하는 일이다. 또 자원봉사자들의 식사 및 간식을 챙겨주는 일도 했다. 집에서는 막내라 누군가를 챙겨주는 것보다 보살핌 받는 게 익숙했는데 여기서 22명의 자원봉사자들의 대표로 일을 하다니 이제 나도 막내는 아닌가 보다. 둘째 날에는 명찰작업과 가방작업을 마무리했다. 명찰 작업을 하면서 도서관대회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생각을 했다. 또 도서관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앞으로 일반참가자로 참가해서 발표도 하고 진행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작업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보이면 괜히 기뻐고 대회날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명찰작업과 가방작업이 끝나고 포스터 작업과 뒷정리를 하며 대회 준비를 마쳤다.

대회 당일은 아침 일찍 모여서 대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파이팅을 한 후 노란색 자원봉사 유니폼을 입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유니폼이 귀엽고 깜찍한 꿀벌 같아서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계속 보고 있으니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했다. 첫날은 1층 로비에서 행사장 안내와 시설안내를 맡았다. 1층이라 참가하는 모든 분을 제일 먼저 만날 수 있었다. 학과 교수님과 도서관 실습 때 나를 가르쳐 주신 대학도서관 팀장님 그리고 주말에 일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정보누리터 선생님들까지. 이곳에서 만나는 느낌은 또 달랐다.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본 교수님들을 직접 보니 마치 연예인을 본 것처럼 신기했다. 대회 이틀째는 세미나 등 각종 회의로 이루어졌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평소 관심 있었던 스마트폰과 대학도서관 관련 주제를 듣고 싶었지만 분주하게 일하다 보니 강연을 제대로 듣지는 못했다. 그래도 대회를 통해 도서관의 현실과 앞으로 나아갈 사서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된 것 같다. 세미나가 끝나고 대회장 정리를 끝으로 도서관대회의 공식 일정이 끝났다.

4일이란 기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고 나의 꿈에 대한 확신을 도서관대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다. 비록 사서라는 직업의 비전이 우리나라에서 그리 밝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의 노력과 열정이라면 우리가 이 길을 밝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금요일 아침 일찍 졸업앨범 촬영으로 해단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먼저 올라오게 됐다. 4박 5일 동안 친해진 자원봉사자들과 협회 선생님들께 인사를 하지 못하고 올라오게 되어서 아쉬웠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었는데 4일간의 동고동락한 인연은 나의 인생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비록 이렇게 헤어졌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도서관대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문헌정보학과 학생이나 아직 사서라는 직업에 확신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도서관대회 자원봉사를 통해 자신의 꿈과 미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더 멋진 사서가 되기 위한 Warming Up



서 다 정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3학년
제47회 전국도서관대회 12기 자원봉사자
89331book@naver.com

“전국도서관대회? 그게 뭐야?” 내가 2학년 즈음, 대회에 다녀왔다는 교수님의 말을 얼핏 들은 것이 대회와 인연의 시작이었다. 그 후 2010년 6월경 싸이월드 클럽인 “도서관을 사랑하는 문헌정보학인의 모임” 정모에 참여하였는데 그 곳에는 대회 자원봉사자 출신들이 많았다. 대회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이 생겼고 그 날 당장 집에 가서 다이어리에 “도서관대회 신청하기 꼭!”이라고 별표를 해 놓았던 기억이 난다.

“작년에 10월달에 했으니까 9월경부터 열심히 찾아보면 나올거야!”라며 머릿속에 “도서관대회, 도서관대회..”를 놓지 않았고 학과 사무실에 들렀다가 공고를 보고 재빨리 전산실로 뛰어가 신청을 했다. 학교생활 15년동안 추석을 포함해 2주동안 장기결석이란 것을 처음해 봤다. 다른 학생들이 연휴 후 학교에 갈 때 나는 일주일 결석을 감행하며 대구행을 택했다.

출발 당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준비하고 전철과 기차를 포함해 6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곳은 엑스코. 자원봉사자실을 갔더니 이미 도착한 자원봉사자들과 협회 직원분들이 보였다. 4:1의 경쟁률을 뚫고 행운을 잡은 사람들과의 4박 5일 행운의 날들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전국 각지 학교의 문정인 22명이 모여 우리는 일명 ‘꿀벌티’를 입고서 ‘제47회 전국도서관대회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다.

첫 날, 원활한 대회를 위해 우리는 2일 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자원봉사자 교육자료를 보면서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엑스코 내부를 둘러 보았다. 저녁 식사 후에는 참가자들에게 배포할 자료집을 넣는 가방 작업을 하였다. 2시간여 동안 2,000여개의 가방에 자료집과 기념품 등을 넣으면서도 힘들다는 불평없이 서로 즐겁게 일했다.

둘째 날, 졸린 눈을 비비고 자원 봉사자실에 모여 명찰작업과 가방작업을 계속하였다. 명찰작업을 하며 전국 각지의 여러 관중에서 사서 선생님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을 보니 도서관대회의 규모가 얼마나 큰 지를 깨달았다. 도서관명을 보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되었다. 가방작업도 하고 그 후 각자 맡은 곳의 업무에 대해 파트별로 설명을 들었다. 나는 등록대와 세미나실을 맡았는데 세미나실에서도 테이프 녹음을 하는 곳이어서 더 긴장이 되었다. 행여 녹음을 잘못하진 않을까, 녹음기가 없어지진 않을까, 걱정했던 기억과 이런저런 설명을 듣고 대망의 셋째날을 기다리며 긴장감과 설렘에 잠이 오지 않았던 기억이 난다.

셋째 날, 대회 당일에는 등록대에서 내 앞에 놓여진 많은 명찰들의 주인을 찾아주었다. 그 이름 중에는 간혹 내가 아는 사서와 교수님의 성함이 있어 반가웠다. 참가증이나 신분증 혹은 명함을 보여달라 말 씀드렸으나 예상보다 참가증 미소지자가 많아 일일이 리스트에서 찾느라 고생을 했다. 그래도 사서 선배님들이 멀리까지 찾아온 노고를 생각해 웃으려고 노력했다.

등록대 이후에는 세미나실을 갔다. 처음 맞이한 팀은 국립중앙도서관이었다. 그 외에도 국회도서관,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용산도서관. 말로만 들던 교수님과 사서분들의 얼굴을 직접 보니 너무나 신기했다.

특히 나는 복수전공으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련 세미나는 내가 맡은 313호에 진행되었다. 평소 문헌정보와 사회복지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고민도 많았던 나는 그 세미나를 듣고 내 진로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다.

대회 참가 전 학교 교수님이 나보고 명함을 만들어가라고 하셨다.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교수님 말씀 따라 명함을 만들었고 내가 맡은 세미나실에 온 사서선생님들과 명함 교환을 하였다. 평소에는 만나기 힘든 분들을 이렇게 만났고, 어렵게 만난 인맥을 놓치고 싶지는 않았다. 내 명함을 받으시며 좋아하시던 선생님들을 생각하니 너무 뿌듯했다.

넷째 날에도 내가 맡은 세미나들이 잘 진행되기를 기원하며 선생님들을 열심히 도와 총 다섯 개의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각자 자기 업무를 성실히 하며 서로 도와 큰 사고 없이 2일간의 대회를 잘 마무리하였다. 이들의 준비, 이들의 실전, 갑자기 빠르게 끝나 아쉬움이 컸다. 포토존에 모여서 모두 함께 사진을 찍을 때, “아 이제 다 끝났구나.”라는 씩씩함이 밀려왔다. 막창집에 협회 직원분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같이 즐거운 식사를 하였다. 끝나고 자원봉사자들끼리 모여 마치 수학여행 온것처럼 같이 TV보며 수다 떨고, 무서운 얘기도 하고... 우리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되어 마지막 밤을 마무리하였다.

마지막 날, 짐 정리를 하고 다 같이 점심 식사를 한 후 우리는 다음을 기약하며 해산하였다.

제47회 전국도서관대회

47th KLA General Conference

우리의 시작은 '도서관대회 자원봉사자' 라는 10글자의 타이틀이었고, 4박 5일을 지내며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문헌정보학과를 온 것도, 47회 대회에 참여를 한 것도, 그리고 4대 1의 경쟁을 뚫고 꼴별티를 입게 된 것도 우연은 아닐거라 생각한다.

서로 사는 곳이 다르고, 지원하는 분야가 달라도 우리는 '도서관을 사랑하는 문정인' 이란 마음만은 영원할 것이다. 4박 5일이란 시간만을 보고도 평생을 볼 것같은 그 왠지 모를 믿음, 그것이 필연인가보다. 이를 위해 나는 일주일의 수업을 빠져야했지만 그 시간보다 이 현장체험이 평생 잊지 못할 큰 공부가 되었다.

우리 모두가 졸업을 하고 사서가 되어 22명이 함께 50, 60, 70 몇회의 도서관대회를 참여하며 그때는 즐거웠으며 지난날을 회상하는 날이 반드시 올거라 믿는다. 